



‘직지’ 관련 문화상품 인기

청주 문화산업진흥재단 70여종 개발



직지주석컵은 2004 제2회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의 은상 수상 작품이다. 전면에 직지를 만드는 과정이 새겨져 있다. 가정에서 맥주잔이나, 음료수 잔으로 활용가능하며 차게해서 먹을 경우 그 시원함을 더할 수 있다. 2개 한 세트이며 박스에 고정되어있어 배송 중 파손의 염려가 없다. 집들이 선물 또는 신혼부부 선물로 인기. 가격 30,000원

직지사무용품 직지 인쇄 활자판을 이용한 사무용 명함통과 열쇠고리다. 한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비즈니스 선물용으로 좋다. 가격 30,000원

청화-직지 공기대접세트 2P 향상 곧고 푸른 대나무의 청화함을 소재로 한국인의 정서에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직지활자를 배경무늬에 접목하여 직지의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가격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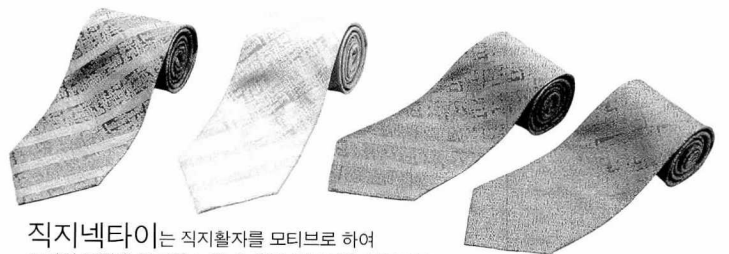
이화-직지공기대접 4p 이화-직지공기대접 4p는 청초함과 직지의 어우러짐이 잘 조화된 작품이다. 이화(梨花): 배꽃, 청초(淸楚):결백(潔白) 애상(哀傷), 냉담(冷淡)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가격 30,000원

청화-직지 루나접시는 향상 곧고 푸른 대나무의 청화함을 소재로 한국인의 정서에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직지활자를 배경무늬에 접목하여 직지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가격 10,000원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소재로 만든 문화상품이 인기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2003년부터 직지를 디자인해서 새겨 넣은 넥타이, 도자기세트, 주석세트, 스카프, 명함 케이스 등 70여 종의 문화상품을 개발, 한국공예관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들 직지 관련 상품은 첫 해에 3천여만원, 2004년에 7천여만원, 2005년에 3억원 어치가 팔렸다. 2005년 4월부터 한국도자기(주)와 공동으로 개발한 직지도자기세트는 주발세트, 접시, 수저세트 등 20여

종으로 한국의 전통미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해외에서도 주문이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올해부터 직지문화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마케팅 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신설하고 국내외 순회 판매전을 열 계획이다. 문화산업진흥재단 측은 “직지문화상품은 수익창출, 직지홍보, 청주 마케팅 등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세계적 명품으로 성장하도록 제품개발과 판로개척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직지넥타이는 직지활자를 모티브로 하여 우리의 문화적 향기를 느낄 수 있게 디자인된 상품으로 제 2회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 금상작품. 가격 25,000원

이화-직지 오블롱접시는 다소 어렵고 무거워지기 쉬운 직지를 한국의 배꽃을 이용해 화사함을 더했으며 흐릿하게 들여간 직지의 활자본과 모시페브릭 배꽃은 한 폭의 동양화병풍을 보는 듯 하다. 가격 33,000원